

# 빈 교실의 재탄생...북카페로 인기

### 목포 덕인중 3년전부터운영...교육계 명물로 자리매김 소통공간 호응에 시·교육청 하반기 10개교에 조성키로

일반 커피숍 못지않은 북 카페가 학교 내에 있다면 어떨까. 가상현실이 아니다. 목포 덕인중학교(교장 김학일)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내 유휴 교실이 늘어남에 따라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목포 사립학교 최초로 3년 전부터 북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동수 덕인중 교장은 "단순히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다목적·다용도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북카페가 시험감독이나 각종 회의의 참석차 학교를 방문했던 외부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목포 교육계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담임교사와 상담을 위해 부득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교무실보다는 열린 공간인 북카페에서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 대화를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처럼 학교 내 북 카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목포시와 목포시 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북 카페 조성 사업을 목포시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우선 올 하반기 초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4개소 등 모두 10개 학교에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북 카페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목포시교육지원청과 매칭사업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덕인중학교 북 카페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박홍목 목포시장은 "평소 학교 내 북 카페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다양한 소통공간인 북 카페가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최근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북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덕인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신항 수출차 중심단지 발돋움 기대

### 2021년까지 429억 투입 배후단지 조성공사 착수

목포신항이 오는 2021년까지 자동차 1만4000대를 야적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돼 수출자동차 복합물류 중심단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신항 배후단지 조감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수출자동차 야적장 추가확보와 관련업체 입주 등을 위해 지역내 최대 관심사업인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48만5000㎡(14만7000평)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비 429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목포항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성되고 수출차량 등의 증가로 야적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후 부지가 협소해 단순 화물운송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수출자동차 1만4000대를 동시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과 관련업체 입주 등을 위한 업무면적 시설 등이 확보돼 수출·입 활동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형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목포항이 대중국 및 동남아권 교역중대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희기자 kjs0533@

## 아·태 분재박람회

### 9월 목포서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재산업 박람회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목포에서 열린다.

25일 (사)한국분재조합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제6회 아·태(ABFF) 분재 산업 박람회&제28회 한국 분재대전'이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분재박람회는 한국 분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분재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제5회 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으며 국내 개최는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선 국내·외 분재 400여점을 비롯한 한국 분재사 기록전, 소나무 특별전, 선과 여백 특별전, 참가국 작품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분재박람회에는 아·태 지역 외국인 200명(공식 방문객수)과 국내 분재조합 산하 18개 지부 회원 9000명(지부당 500명) 등 최소 1만여명 이상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이 분재 박람회는 순천 정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분재조합 박람회 현 회장이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연으로 목포에서 열리게 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목포시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 1년 두드러진 성과

### 사각지대 발굴 5배 늘고 사례관리는 20배나 증가

목포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 허브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는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영역별 사업 운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4~20배 정도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용당1·원산·유달·목원·용해 등 8개동 주민센터의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용당·하당·동명·산정동 등 8개동 주민센터로까지 확대해 관내 23개동 가운데 16개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복지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신설, 방문 상담·통합 사례관리·사각지대 발굴·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가 공개한 복지 허브화 사업 운영 실적에 따르면 사업 시행 전(2016년 1월~6월)에는 방문 상담 1163건, 사각지대 발굴 275건, 사례관리 32가구, 서비스 연계 5096건이었으나 사업 시행 이후(2016년 7월~12월)에는 방문 상담 5147건, 사각지대 발굴 1373건, 사례관리 624가구, 서비스 연계 764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월 이후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



목포시 용해동 주민센터가 운영중인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에서 지역민들이 복지 관련 맞춤형 상담을 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관리는 증가율이 무려 20배에 달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복지 통장 591명과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17명 등 908명으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해 민관협력을 활성화시킨 게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목포시는 분석했다.

현재 저소득층 반찬 지원을 비롯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어르신 영정사진 제작, 저소득층 세탁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및 위생 환경개선 등 각 동별 특성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

체 특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복지재단·사회복지기관·종교단체 등 민간 후원연계가 871건에 2억7157만원, 공공자원연계는 149건에 6312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영숙 목포시 사회복지과장은 "민관이 합심해 현장밀착형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복지허브화 사업 실적은 5월말 현재 방문상담 3873건, 사각지대 발굴 980건, 사례관리 245가구, 서비스연계 5818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 18개 분야 100억 확보

목포시가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제안공모 사업에 참여한 결과, 18개 분야에서 총 100억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5건, 행정자치부 2건, 국토교통부 1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명동 77계단 일원 취약지역 구조개선 사업 36억원, 숨으로 덮인 섬 고하도 여행(창조지역 사업) 1억5000만원, 조선업 퇴직자(예정)자 관련 지원 사업 10건에 51억6800만원, 목포 국제 파워보트대회 7억3000만원, 걷기 여행길 활성화와 공모사업 3000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8500만원,

우수공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 2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부터 정부가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변경해 300여개 사업을 각 부처별로 공모함에 따라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유 방안을 개설해 적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동기부여를 위해 국비 지원액·건수·사업추진 노력도 등 실적에 따라 우수부서 인센티브와 담당 직원 포상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천환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내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로드맵을 만들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전시회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20주년 목포환경선언 낭독과 영상 상영, 시낭송,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또 20주년 기념으로 환경적 의미가 담긴 버튼 만들기 체험행사도 가졌다.

부대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탈핵포스터 전시회인 '백핵무의전'은 오는 28일까지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목포환경연합 관계자는 25일 "2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회원 간 결속과 내실을 다져 목포환경연합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